

현지 기관이 전망하는 美 118대 의회 중대 정책의제

- ◆ 118대 미국 의회가 1월 3일부로 출범
- ◆ 하원 상임 위원장 전원 공화당 의원으로 교체, 정부 견제 강화로 의회 교착 전망
- ◆ 강경파 세입 위원장 등장으로 바이든 무역정책에 난항 예상
- ◆ '24년 대선을 앞두고 대중 견제 정책에는 초당적 협력 전망

1. 조사 배경

□ 지난 11월 중간선거 결과 118대 미국 의회가 1월 3일부로 출범

○ 양당은 상·하원 지도부와 상임위원회 등 구성 절차 진행 중

- * 공화당 하원('22.11.15)·상원('22.11.16) 지도부 선출 ⇒ 민주당 하원('22.11.30)·상원('22.12.5) 지도부 선출
⇒ 하원 의장 선출(1.7) ⇒ 하원 운영규칙 통과(1.9) ⇒ 공화당 하원 운영위원회 주요 위원장 선출(1.10)
⇒ 하원 상임위 소속 공화·민주당 의원 수 비율 합의(1.17) 등

□ 로비, 로펌, 언론 등 현지 기관은 118대 의회에 대한 다양한 분석 제기

- (1) 상·하원 지도부 구성 현황, (2) 중요 상임 위원장 교체, (3) 중대 정책의제 및 분야별 쟁점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음.
- △분할 의회 환경, △정치 양극화 심화, △공화당 강경파 득세, △야당의 행정부 감독 강화 등 의회 교착 연출 ⇒ 중대 입법 난항 전망 ⇒ 일부 초당적 의제를 제외하고 행정부 직권으로 정책 추진 가능성

2. 주요 내용

① 양당 상·하원 지도부 구성

- (하원) 공화당 다수당 탈환 결과, 공화당이 하원 의장과 상임 위원장 독차지
 - 공화당은 Kevin McCarthy(하원 의장), Steve Scalise(다수당 대표), Tom Emmer(다수당 원내총무) 등으로 원내 지도부 구성

- Hakeem Jeffries(소수당 대표), Katherine Clark(소수당 원내총무), Pete Aguilar (의원 총회 의장) 의원 등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 출현

○ (상원) 이전 117대 의회 지도부에서 큰 변동사항 없음.

- 다수당 대표와 원내총무에 Chuck Schumer와 Dick Durbin, 소수당 대표와 원내총무에 Mitch McConnell, John Thune 의원 유지

* 임시의장(President pro tempore)에 민주당 소속 Patty Murray 의원 선출

< 118대 의회 양당 지도부 >

| | 하 원 | | | | 상 원 | | | |
|-----|---|--|---|--|--|---|---|---|
| 다수당 | Speaker Kevin McCarthy (Calif.) | Majority Leader Steve Scalise (La.) | Majority Whip Tom Emmer (Minn.) | Conference Chair Elise Stefanik (N.Y.) | Majority Leader Chuck Schumer (N.Y.) | Majority Whip Dick Durbin (Ill.) | DPCC Chair Debbie Stabenow (Mich.) | Steering Chair Amy Klobuchar (Minn.) |
| | Minority Leader Hakeem Jeffries (N.Y.) | Minority Whip Katherine Clark (Mass.) | Democratic Caucus Chair Pete Aguilar (Calif.) | Caucus Vice Chair Ted Lieu (Calif.) | Minority Leader Mitch McConnell (Ky.) | Minority Whip John Thune (S.D.) | Conference Chair John Barrasso (Wyo.) | Policy Chair Joni Ernst (Iowa) |

[자료] 블룸버그 GOV

② 상임 위원장 교체 현황

○ (하원) 상임 위원장 전원이 공화당 소속 의원으로 교체

-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4개 상임위원회(세출, 규칙, 에너지·상업, 세입 위원회) 중 세입 위원장 교체에 관심 집중

* 세출, 규칙, 에너지·상업 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부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맡게 됨.

- 새 세입 위원장에 친트럼프 성향 강경파 Jason Smith 의원 선출. 직전 부위원장인 온건파 Vern Buchanan 의원과 경쟁에서 승리

- 세제·무역 이슈를 주관할 스미스 위원장은 △미국 노동자 우선, △대중 강경책, △감세 확대 등 과거 트럼프 정부 경제 정책에 적극 찬동

* 스미스 위원장 6대 경제 의제(성명서 1.9) : (1) 미국인을 위한 세금 정책 가동 (2) 국세청 (IRS) 감독 강화 (3) 공급망 리쇼어링 (4)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해소 (5) 국내 에너지 생산 확대 (6) 복지보다 고용 확대에 중점

- (상원) 4대 핵심 위원장직(금융, 세출, 법사, 외교)에서 세출 위원장을 제외하고 기존 민주당 소속 위원장 유임 확정
- 이전 세출 위원장 Patrick Leahy 의원 은퇴로 Patty Murray 의원이 승계

< 상·하원 핵심 상임 위원장 선출 현황(전망) >

| | 위원회 | 위원장 | 부위원장 |
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하원 | 세출 | Kay Granger (공-텍사스) | Rosa DeLauro (민-코네티컷) |
| | 규칙 | Tom Cole (공-오클라호마) | Jim McGovern (민-매사추세츠) |
| | 에너지·상업 | Cathy McMorris Rodgers (공-워싱턴) | Frank Pallone (민-뉴저지) |
| | 세입 | Jason Smith (공-미주리) | Richard Neal (민-매사추세츠) |
| 상원 | 금융 | Ron Wyden (민-오레곤) | Mike Crepo (공화-아이다호) |
| | 세출 | Patty Murray (민주-워싱턴) | Susan Collins (공화-메인) |
| | 법사 | Dick Durbin (민주-일리노이) | Lindsey Graham (공화-사우스캐롤라이나) |
| | 외교 | Bob Menendez (민주-뉴저지) | Jim Risch (공화-아이다호) |

[자료] 미국 의회, Akin Gump 등

③ 중대 정책의제 및 쟁점 사항

① 농식품 정책

- 연방 식량 구호 프로그램과 농가 지원 예산을 위해 5년마다 갱신하는 'Farm 법안' 입법 기한이 올해 9.30까지로 임박
- 하원 공화당은 저소득층 식품 구매 지원금, 농업 기후변화 대응 예산 등 삭감을 주장,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나 연내 통과 유력시

② 세출법안 통과

- '24년 회계연도 세출법안 통과에 민주-공화 간 지루한 힘겨루기 예상
- 바이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기후 위기, 교육, 보건, 에너지 등 예산에 대한 공화당의 견제 고조 예상

- 공화당은 국방, 환경, 복지 등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내년 세출법안의 무난한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

③ 정부부채 상한선 인상

- 1.19부로 '21년 인상됐던 정부부채 법정 상한(31.4조 달러) 도달 예정.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통해 정부 파산 위험을 6월경까지 연기 가능
- 공화당이 부채 상한선 인상 조건으로 '23년 정부 예산 삭감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, 민주당·정부는 타협 가능성 일축 중

④ 에너지·기후 정책

- 하원 공화당이 주장하는 화석에너지 개발, 재생·소형 원자로·수소연료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안에서 부분 합의 가능성 전망
-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 조사 예고
- * 인프라법 및 IRA법 집행, 에너지부 기후 프로그램, 증권거래위 기후공시 제도 등

⑤ 외교 정책

- △우크라이나 사태, △미-중 갈등, △국제 경제 침체 및 정치 불안, △식량·에너지 위기, △테러리즘 방지, △기후 위기, △사우디·이란 등 중동 관계, △인도-태평양 안보 협력 등 당면과제 산적
- 하원 공화당은 △아프가니스탄 철군, △우크라이나 군사 지원, △코로나 백신 제공, △대중 수출통제 등 바이든 정부 정책 감사 공언 중

⑥ 세제

- 공화당 하원 장악으로 바이든 정부의 본격적인 세계개혁(법인·부유층 소득세율 인상, OECD 국제 법인세 합의 이행 등) 관철은 어려울 전망
- 하원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국세청 예산 증액, IRA 자동차 및 친환경 세액공제 제도 등에 대한 감사 착수 예정

⑦ 테크놀로지

- 민주·공화당은 사이버보안, 광대역망 확대, 개인정보 보호, 거대기술기업(빅테크) 규제 등에서 초당적 협력 예상

⑧ 무역·투자

- 바이든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 및 비전통적 무역협정* 추진 지속 예고
 - * US/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(TTC), the Indo-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(IPEF), Americas Partnership for Economic Prosperity (APEP) 등
- '24년 대선에 대비 양당 모두 강력한 대중 정책 수위 제고 확실히. 하원 미·중 경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연내 대중 전략 완성 예정
- 대중 기술 견제를 위해 수출통제, 대중 투자 감독, 노동·환경 관련 수입 규제 강화 관련 추가 입법 및 행정 조치 예고

< 118대 의회 무역·투자 정책 법안 통과 전망 >

| 정 책 | ★(가능성 작음) - - - - ★★★★★(가능성 큼)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|
| 수출통제 및 집행 강화 법안 | | ★★ | | |
| 무역촉진권한(TPA) 부활 법안 | | | ★★★★ | |
| 영국과 무역협정 추진 명령 법안 | | ★★ | | |
| CPTPP 협상 추진 명령 법안 | | ★★ | | |
| 대만과 무역협정 추진 명령 법안 | | | ★★★★ | |
| 코로나19 원인 규명 법안 | | | | ★★★★★ |
| 중국 기술기업 규제 강화 법안 | | | ★★★★ | |
| 미국의 대중 투자 감시 법안 | | ★★ | | |
| 미국 대만 정책 개혁 법안 | | | ★★★★ | |
|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 법안 | | | ★★★★ | |
| 중국의 지재권 탈취 조사 법안 | | | ★★★★ | |
|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 법안 | | | ★★★★ | |
| 핵에너지 개발 투자 확대 법안 | | | | ★★★★★ |

[자료] Hogan Lovells

* 자료 : Akin Gump, Arnold&Porter, Gibson Dunn, Squire Patton Bogg, 블룸버그 GOV, The Hill, Roll Call, Foley&Lardner, Hogan Lovells 등